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음 4월 1일) 제17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대선 D-13

고개 든 비민주당 3자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성사 가능할까?

잡복해 있던 후보 단일화 이슈가 비 민주당 진영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합종연횡이 전개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자력으로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과의 연대 방안을 마냥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전망이 제기된다.

단일화 논란의 중심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의 거부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3자 후보 단일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사퇴압박'을 받은 유 후보가 '원주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성사는 불투명하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마라톤 의총에서 "좌파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해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냈다.

3자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반문재인 연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지율이 10% 선에서 정체되면서 안 후보, 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보

문·안 지지율 격차 벌어져 바른정당, 劉 거부에도 추진 현재로서는 단일화는 불투명

자유한국당, 당 중앙선대위서 보수후보 단일화 공개적 제안

안 지지율 추이가 관건될 듯 논쟁은 이번주가 마지노선

수 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보수가 양분돼도 힘든 지경인데 사분돼서야 어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나"며 "승산이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몰아서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도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대할 생각이 추후도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해 1차로 보수 단일화를 이룬 뒤 안철수 후보와 담판을 짓는 2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와 유 후보가 자격미달이란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한국당의 단일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자강론'을 강조하던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연대 등을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바른정당과 합당이나 공식적인 연대, 그것도 아니라면 중도개혁세력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믿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을 위해 국민의당이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화는 향후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안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보수후보들과 단일화할 경우 호남·진보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의 소멸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지는 그림을 원한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보수진영의 자발적 지지 선언 형태의 느슨한 연대 방식 논의가 물밑에서 오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후보간 단일화 논쟁도 이번주가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오는 30일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쇄 후에도 단일화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적시돼 있으면 사표가 나올 수 있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다.

정치 전문가는 "새로운 대형 폭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유승민-안철수 단일화가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도, '부안 공항 온천개발계획' 승인

부안 공항에 객실 579실 규모의 온천휴양 복합레저시설이 조성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 변산반도 공항온천개발계획'이 지난 7일 개최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공항온천에서 발견된 온천공은 총 3공이고, 최고 용출 수온은 36.1도이며 수질은 염화물광천(CaNa-Cl) 온천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화학

연구원 등의 온천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천연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해수온천으로 의학적 효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온천개발계획'은 부안군 변산반도 격포리, 도청리 일원의 9만7960㎡ 부지에 총 사업비 1,627억원을 투입해 전체 객실수 579실의 온천휴양시설 2동(9층), 숙박시설 1동(9층), 교육연구시설 1동(9층), 수련시설 1동(5층) 등 관광휴양기능과 요양 및 치료기능

을 갖춘 체류형 종합온천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주)태창은 관광휴양, 기업연수,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춰 온천이용 계층을 다양화해 전북도와 부안군의 관광수요 증진에 부응하겠다고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170여만명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북도 일원과 부안군 등 주변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300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용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스카우트 서밋총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이주영 유치위원장, 함종한 한국 스카우트총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은 24일(현지시간)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코리아리셉션'에서 아·태지역의 단합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세계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의 표심을 결속을 다지고 있다.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으로 아·태 표심 결속 '올인'

▶도-스카우트연맹, '코리아 리셉션' 개최

지역 공동체 형제에 각인 새만금 유치 기원 분위기 고조

아·태지역 스카우트 서밋총회에 참석해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하진 지사 등 유치단 일행은 24일(현지시간) '코리아 리셉션'을 갖고 아·태지역의 단합된 분위기를 끌어올려 세계총회에서의 표심 결속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코리아 리셉션'은 이번 아·태 서밋총회에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기획한 하이라이트 자리로 회원국 참석자들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아·태 공동체의 형제애를 더욱 서로 각인하며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기원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고 전해졌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한국관광공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 민, 관, 정계 지휘부가 총출동한 유치단 일행은, 총회 3일째를 맞아 아·태회원국들과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 전초전으로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 총회 전까지 추진할 전

략을 최종 점검하는 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태지역 25개 회원국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리셉션에서 송하진 지사는 "오는 2023대회는 잼버리행사에 필요한 전기, 수도, 상하수도, 접근도로, 공항과 신항만 등 모든 인프라 편의시설이 별도로 국가정부 주도로 조성된다"고 강조한 뒤 "따라서 500여억원의 잼버리 예산은 100%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들의 활동에 필요하고 유익하게 소요 될 것이며 지방 정부인 전북도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리셉션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한 식전공연으로 오프닝을 열고, 잼버리유치 홍보영상과 함께 김유빛나라(전북스카우트연맹 코끼리지역대) 스카우트대원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참석자들의 표심을 새만금으로 쏠리게 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유치단 모두가 한복을 입고 리셉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송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에게 일일이 전해줄 족자를 미리 제작해서 한명씩 전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전북도의 감성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컨텐츠'임을 다시금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국 주요 인사들은 한국지방정부 Governor(도지사)가 손수 써내려간 서화 족자를 각각 넘겨받자 정성에 감탄하며 잼버리 유치에 대한 전북도의 충분한 인프라 여건과 성공개최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등 대한민국의 진정성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단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잼버리 야영지 등 인도네시아 스카우트 관련 지역을 시찰하는 교육투어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인사 한명이라도 더 만나 아·태회원국 100% 유치지원을 목표로 득표활동을 펼쳤다.

총회 첫날인 지난 22일부터는 매일 5~6개국 대표단들과 개별 면담을 하며 스카우트적 '형제애'를 다진 유치단 일행은 25일 환송만찬 및 국가별 KEY MAN 개별면담을 진행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2017.5.13 (토) 모악산도립미술관 일원
www.wanju.go.kr/tour ☎ 063)290-2621-2 bit.ly/2mXj6ab

완주 프리포즈 축제

커플의, 커플에게 의한, 커플을 위한

모악산과 경각산의 사랑이야기

면 옛날 경각산은 모악산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구이면에는 생명의 근원, 풍요의 상징인 구이저수지가 생겨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하던 여러분의 사랑도 꼭 이루어질거예요~

스토리텔러 김미경

프리포즈 라운지 주요행사

10:00	두근두근 ost 음악방송(am)
11:00	제2회 완주 프리포즈 축제 오프닝 · 모악산과 경각산의 사랑이야기
11:20	최강커플 찾기 '좋다고 말해' · 황금 커플링을 노려라!
14:00	프리포즈 뮤지컬
14:30	드레스쇼
15:00	축하공연 / 연애특강 토크콘서트
16:00	행복발전소 리브송 콘서트

프리포즈투어 상품 사전예약 50명 참가비 10,000원

프리포즈투어 상품 사전예약 50명 참가비 10,000원

사랑의 자물쇠 기부해주기

사랑의 맥골주 축하공연

프리포즈 라운지 행사이벤트 참가

※ 상기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진 시 세기의 프리포즈 | 사랑의 명언 | 프리포즈 유래와 성공법 | 사랑담은 세줄♡편지 커플(부부)사진 등

체 험 세줄♡편지 | 재미로 보는 타로 | 은행알 사랑표 | 두근두근 사랑매치 캘리그라피 청첩장 | 작은결혼체험관 등

포토존 사랑사랑 러블리 포토 스팟 | 석고미인 '꽃을 든 남자'

음악 사전신청 하GO 푸짐한 선물도 받GO | 페이스북, 홈페이지, FM 90.1 MHz

이벤트 최강커플 '좋다고 말해' (20팀) | 드레스 show (10팀) | 사랑의 세레나데 (10팀) | 프리포즈투어 (50팀)

공모전 커플(부부)사진 | 세줄♡편지 | 프리포즈투어에서 찍은 '사랑의 인증샷' 사진

상 품 황금커플링 | 포토촬영권 | 전북투어패스카드 | 현장쿠폰 등